

수험기간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김 주 현

- 서울 반포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비교 문학과문화학, 신학 복수전공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변호사 실무 수습 중

I. 들어가며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합격기를 쓰게 됨에 감사하면서도 저의 합격기가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맞는 수험방법을 찾아가는 데 방해가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불안한 수험생에게는 누군가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며칠을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수험생이든 자신의 성격이나 삶의 리듬을 과도하게 바꾸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잘 다독이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의 합격기가 하나의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땀했던 불합격 이유와 그 실수들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안들을 나누겠습니다.

수험기간은 괴롭고 지난하지만, 이 기간이 많은 분들에게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자 이후에 두고두고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쉬운 길은 없다

첫 시험에 불합격한 뒤 제가 가장 반성한 것은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꾸 기본서를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가를 보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

전거를 탈 때 자꾸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자전거는 안 타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에 관한 책만 열심히 읽다 시험장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간혹 기본서나 핸드북만 보고도 사례형을 잘 푸는 친구들을 보았는데 저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배운 개념을 현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하면서는 문제풀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쉽게 지루해지는 성격이라 요일별로 아침에 할 일을 달리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민사 사례, 화요일에는 형법 사례, 수요일에는 공법 사례, 목요일에는 민사 기록, 금요일에는 형사 기록, 토요일에는 공법 기록, 일요일에는 상법 사례 또는 국제거래법 사례를 1회씩 시간 맞춰 푸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주일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며 변시 5개년과 모의고사 1개년을 풀었습니다.

오전에 문제를 푼 후 오후에는 복습을 하며 몰랐거나 자신없는 개념들을 그 부분의 기본서나 핸드북을 읽고 제 손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잘 모르는 개념들은 나중에도 계속 헛갈리기 때문에 이후에 공부할 때에는 책이 아닌 제가 정리한 자료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내가 자신 없는 것들만 모아둔 정리 자료가 생겨 자신감이 생깁니다.

필요에 따라 기본서를 읽을 때도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나 여타 핸드북은 문제를 풀기 위한 가이드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책을 몇 회독 했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읽는 것 자체를 위해 정독하는 것과 비교하여 책을 읽을 때의 집중도와 책을 덮고 나서 기억하는 내용의 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냅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기간에 그러한 차이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킁킁대며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에 좌절하면서도 조금씩 그 부분을 메워갈 때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씩 실력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수험생활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III.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위와 같이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푼 문제에 안 나온 것은 어떻게 대비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들은 대표 문제와의 비교, 유추를 통해 공부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공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불안을 달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의 대표적 문제를 뽑아 사례상황과 답안의 구조를 잘 익혀둔 후에는 그 개념의 다른 세부쟁점을 묻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표문제의 상황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부 관례를 모르더라도 답안의 기본적 구조는 잡을 수 있고 공부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II에 쓴 것처럼 기출문제들을 시간 맞춰 풀고 꼼꼼히 공부하고 나니 그 후 모의고사 3개년치에 해당하는 민사, 형사, 공법 사례를 다 합쳐 한 달 내에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세부 판례 공부는 객관식을 공부하며 익힌 판례들과 최신판례로 채웠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 객관식과 중요 최신판례는 사례형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목차를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막판에 교수님들과 학원 강사들이 짚어주는 유력쟁점에 대한 정보도 얻어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세부쟁점들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변호사시험에 나올 모든 문제의 답을 아는 것은 쉽지 않고, 다 알지 않아도 합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에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세부판례를 혹시 모르겠더라도 큰 쟁점 파악과 그에 따른 기본구조는 쓰고 나오겠다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초를 탄탄히 쌓고 그 후에 가지에 살을 붙여가는 형식으로 세부 쟁점들로까지 공부를 점차 확대해가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IV.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수험생활은 여러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스스로 계획한 공부양 만큼 실행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조금씩 지체되던 계획이 나중에 견잡을 수 없이 밀리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져 공부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계획을 재수정해서 다시 나아가기는 했지만 애초에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몸과 마음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짜서 실제로 그것을 해나가며 자신감을 얻고 그것이 다시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지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

로 오랫동안 공부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처럼 종종 의욕이 과다해지는 분들이라면 머릿속에서 처음 떠올린 계획을 그것의 반의 반까지도 줄일 각오로 과감하게 계획을 축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중력과 체력, 공부 스타일에 대한 냉혹하고 엄격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 성취감을 갖고 공부할 때 본인이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분량과 시간을 계산해보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많지 않아 그만큼만 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로스쿨에 합격하셔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실제로 해내기만 하시면 그것은 절대로 합격하는데 미달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 3학년 때 수없이 “양을 줄여라.”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양을 과대평가하고 그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제 실행한 분량을 보며 불안해져 다시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악순환 때문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완벽한 공부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끈질기게 매달릴 때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V. 전반적 계획

저의 재시생활 전반의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형과 기록형 수험방법

① 변호사시험 5개년과 모의고사 1~2개년을 II에 쓴 것처럼 매일매일 풀며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를 2~3회독, ② 변호사시험 3개년은 컴퓨터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양으로 답을 정리해 봄, ③ 6, 8, 10월 모의고사 틀렸거나 불확실한 부분 복습, ④ 10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약 한달간 민, 형, 공 모의고사 3개년 정도를 진도별 문제집을 가지고 빠르게 풀어봄, ⑤ 객관식, 최신판례 공부를 하며 중요한 판례는 사례형으로 나올 때를 대비해 문제 옆에 간단하게 목차를 잡아봄, ⑥ 부족한 과목은 학원의 파이널 강의를 들었습니다.

2. 객관식 수험방법

① 객관식은 컷정도만 나오면 그보다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은 효율이 낮은 것 같아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음, ② 8월 모의고사 전까지 변호사시험 기출 전체를 풀고 2회독, 부족한 과목은 거기에 더하여 모의고사 3개년까지 풀고 2회독(매일 1~2시간씩 풀었음), ③ 8월 모의고사 후 10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민, 형, 공 최신판례 강의를 듣고 부족한 과목 우선적으로

복습, ④ 변호사시험 응시 직전까지 최신판례를 계속 복습하고 객관식 기출은 틀렸던 것 위주로 복습, 많이 못 푼 과목은 새로 풀기도 했습니다.

3. 선택법(국제거래법)의 수험방법

① 일요일마다 상법과 번갈아가며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를 풀, ② 여름방학에 광민희 교수님 특강을 듣고 이후 그 교재 위주로 복습을 했습니다.

VI. 마치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보았는지,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퀄리티라면 책은 얇을수록 좋고 이와 함께 이해를 도울 기본서가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명한 책이든 아니든,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강사이든 아니든,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갈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대로 자신의 리듬에 맞게 변호사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간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의 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이 되면 좋겠습니다.